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⑦

주제 :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마음 씀씀이에

영진 스님은 "문없는 문인 '공문(空門)'으로 나아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뭣고' 화두를 들고 간절하게 애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상 백고좌

영진 스님

(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여러분 어떤 물건이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육조 스님께 남악회양 스님이 찾아뵈었을 때 하신 이 물음에 남악회양 스님이 8년간 침식을 잊고 고뇌했습니다. 8년만에 깨닫고 돌아온 남악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에게 "설사 한 물건(一物)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이 "닦아 증득함이 있느냐?" 하니, 스님이 "닦아서 증득할 건 없지 않으나 물들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문답으로 남악회양 스님은 법 인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사부대중께서는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여섯 분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당나라 때 마조도일 선사 밑에 81명의 선지식이 배출되어 이른 바 '선의 황금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각처에서 법을 편 이 선사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 5~6명 계셨는데, 이 가운데 대매법상이란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대매산에서 30년 동안 나오지 않아서 호를 대매라고 한 것입니다. 스님의 계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생각 일어나고 사라짐이 생사

베고 버려진 고목이 또한 찬 나무를 의지하니(摧殘枯木依寒林) 몇 번이나 봄을 만나도 마음 변치 않았던고(幾度逢春不變心) 나뭇꾼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거늘(樵客遇之猶不顧) 목수가 이를 어찌 간절히 찾을까 보냐(郢人那得苦追尋).

여기서 쓸모없는 나무는 '이뭣고' 화두를 들고 평생 씨름하는 수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외람되이 선원장 법회에서 설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좌들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후 성도하시고 49년간 중생 구제를 위해 법을 설하시다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게에는 불교의 목적과 법을 설하신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위 하늘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가 고통 속에 잠겨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는 이 선언은 인류 최초의 평등선언입니다. 요즘도 4성계급이 뚜렷한 인도에서 그것도 2600여년전에 이러한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목숨을 내건 부처님의 이 선언을 우리는 아주 의미깊게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아(我)'가 무엇이길래 존귀할까요? 삼계가 고통속에 있어서 나의 고(苦)를 해결한 것이 불교라고 할 때, 그럼 왜 '고'인가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늙고 병들어 죽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런 고통은 태어남 자체가 원인이어서 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죽음 뒤의 세상이 행복한 곳이라면 두렵지 않을텐데 알지 못해서, 무명(無明)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 무명은 윤회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은 마음을 닦아 무명을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마음 한번 바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명이 윤회의 원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我)는 마음이요 불성이자 선(禪)입니다. 그때그때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 것입니다. 마음을 밝혀서 알고 보면 마음이란 원래 밝아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이니 마음이니 하지만 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말과 글을 빌려서 이야기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극락과 지옥이 궁금하세요? 경전에서도 극락과 지옥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일본의 한 무사(武士)가 노선사를 찾아가 "극락과 지옥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점잖은 노스님이 그 무사한테 "이놈, 나쁜 놈"하며 침을 튀기고 핏대를 올리며 욕을 했습니다. 무사가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노스님이 더욱 욕을 하자 무사가 큰소리로 경고합니다. "스님, 한번 더 욕을 하시면 목을 벨 겁니다."

그래도 스님이 욕을 하자 무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검으로 목을 베려는 찰나, 노스님이 말합니다. "그게 지옥이야!"

그 말을 듣자 말자 무사가 바로 깨닫고 "스님, 죄송합니다" 하자, 노스님이 이번에는 "그게 극락이야"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극락을 이처럼 극명하게 설명한 예는 없을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한 마디 한 예를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심한 설사가 나신 분들은 제 법문이 하나도 안 들어 올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지옥이요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나옹혜근 스님이 설했듯이 한생각 일어나고 사라짐이 생사(生死)입니다. 현재에 충실해서 바르다면 내생은 저절로 행복할 것이니, 왜 내생을 미리 고민하느냐 이 말입니다.

극락과 지옥을 만드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는 '마음에 점을 찍는' 점심(點心) 법문을 해야 겠군요.

경허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만공 스님은 덕숭산에서 선풍을 떨친 선지식입니다. 당시 남쪽의 혜월 스님, 북쪽의 수월 스님, 동쪽의 한암 스님과 함께 널리 법을 펼 때입니다. 만공 스님의 문하에서 공부하던 한 수좌가 혜월 스님께 공부하러 간 후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더랍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금강경의 한 구절)인데 큰스님께서는 어디다 점심하시겠습니까?"

만공 스님이 답하길 "위음왕불(威音王佛, 최초의 부처님) 이전에 점심해 마쳤느니라" 했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점심해 마쳤다는 말입니다.

만공 스님이 이 편지를 부치려 하는데, 수제자인 보월 스님이 그걸 보고 "스님, 그동안 평생 수행한 게 겨우 이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공 스님이 이 말을 듣자 말자 그 자리에서 침식을 잊고 7일간 좌선했다고 합니다. 만공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보월이가 내게 10년 먹을 양식을 꿔주었다"고 칭찬했답니다.

만공 스님은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가 호서지방을 등지고 영남으로 내려간 것은 남아있는 의심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여우같은 의심을 끊지 못했구나. 이 편지를 읽은 즉시 다시는 의심치 말고 소각해 버리거라."

生死는 하나…마음은 불변

여러분도 오늘 점심을 드시고 이 법문을 깊이 천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을 물, 불, 공기, 숫자 등으로 표현하고 동양의 노자는 혼돈일기(混沌一氣)니, 무극(無極), 태극(太極)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고 주장했다가 신을 모독한 죄로 사형 당했듯이 서양의 종교는 지구 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불교는 2600년전에 우주를 바로 본 종교입니다. 금강경의 삼천대천 세계가 무한 우주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주를 감싸는 '허공'은 안과 밖이 없기에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 허공도 나온 곳이 있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원강경>에 '무변허공 각소현발(無邊虛空 覺所顯發)'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가없는 허공은 어쩔 수 없이 허물을 지었다"는 영진 스님은 올동안거부터는 백담사 무문관(무금선원)에서 정진할 예정이다. 지난 98년 하안거를 백담사 무문관에서 난 적이 있는 영진 스님은 대중 공부도 좋지만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좁은 방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로 묵언해야 하는 수행.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이기에 갇혀있다는 생각도, 나태할 틈도 없다는 무문관. '공문(空門)'으로 나아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살아가라)이라는 당신의 좌우명에 걸맞게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삶을 살아가는 영진 스님. 훤칠한 외모에 장부다운 기상을 지닌 스님이 '문없는 문'을 투과하고 다시 대중을 위해 사자후를 토할 그날이 기다려진다.

생사문제 해결위해 다시 '문 없는 문'으로

기자가 본 영진 스님

영진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99년 조계종 교육원에서 였다. 당시 조계종 기초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던 영진 스님을 다시 뵌 곳은 올초 팔공산 은해사 기기암. 5년만에 뵌 스님은 불편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참선과 포행으로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서인지 표정에는 환희심이 넘쳐나고 있었다.

어렵게 '전국 선원장 초청법회'의 참석을 요청했을 때 극구 사양하면서도 기초선원장을 맡았다는 책임감으로 머뭇거리며 승낙하던 영진 스님. 석달 만에 조계사 대웅전에서 설법하는 스님의 목소리에는 겸손한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다.

"이 법단에 올라올 자리가 아닌데…."

"이젠 공부만 할거예요."

법회가 끝난 후 "'간화선 봄'이란 명분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사리탑위에 법비내려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제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십이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져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대형주차장 완비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기 도 비 : 10만원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 문 열 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3월28일-조계사 대웅전)

따라 극락-지옥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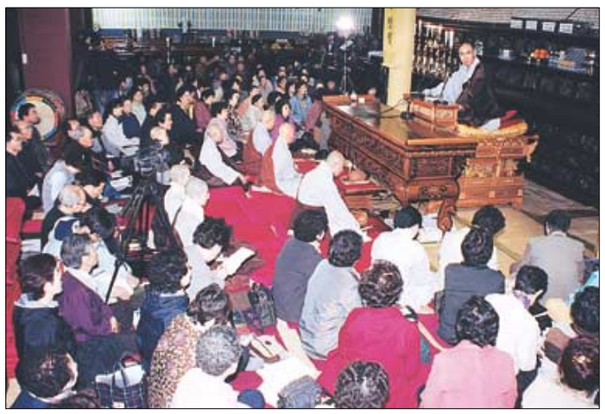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 말은 우주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불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마음을 '여래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마음이 선악과 시비 등이 나눠지지 않은, 구분 안된 한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이건만 홀연히 일어난 무명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구름 때문에 태양과 같은 마음이 가려질 뿐이어서 따로이 닦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수행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습기를 녹여 없애면 바위 속에서 금을 얻듯이, 용광로에서 제련된 금이 다시 흙이 되지 않듯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부처 마음'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마음을 밝히기 전에는 윤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석에서 금을 제련하는 과정이 참선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큰 믿음을 내야 합니다. 이 대신근(大信根)이란 선지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지식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점검함으로써 확철대오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은 큰 도인이 적을까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남북한을 합해도 40배나 큰 중국 대륙에서 전화도, 기차도 없을 때 선지식이 계시다고 하면 천리 밖을 몇 달이 걸려서라도 찾아갑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구구절절 간절한 믿음을 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가서 마침 그 자리에 계시다면 더없는 기쁨이었지요. 자기의 고뇌가 클수록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믿음으로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하고 물을 때 "마른 똥 막대기니라" 할지라도 전체가 '참 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 걸음, 만 걸음이 바위를 뚫는 낙숫물처럼 간절한 믿음이 되어 진의(眞疑)를 돈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두가 잘 안될 때는 화두를 바꿔도 될까요? 저의 경우는 화두가 얼마나 안되든지 '이뭣고'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두가 자꾸 끊겼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무자' 화두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무자 화두를 들었더니 '이뭣고'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바위에 잔디가 눌려있다가도 끝내 뻗어 나오듯이 '무자'를 하는데 '이뭣고'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어째서 이뭣고가 무(無)라 했을까' 이런 화두를 들면 안됩니다(웃음).



참선 공부의 핵심을 알기 쉽기 설명하는 영진 스님의 설법에 고개를 끄덕이는 불자들.

낙숫물이 바위 뚫듯 간절한 믿음이 중요

성에 깊히 천착해 자유인 되길

한 스님께서 "밤에 홀로 배를 저어 가는데 바위가 나타나자 호랑이 인줄 알고 깜짝 놀라 활을 쏘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활을 당겼더니 '퍽' 소리가 나서 바위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호랑이인지 바위인지 아리송 해서 바위에 부딪치자 마자 화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사문제에 부딪쳐 무심으로 활을 당겼을 때만 화살이 바위를 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납작 엎드렸다가 온 힘을 다해 덮치듯이,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의 가장 큰 힘은 '간절 절(切)' 자에서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 잡념도 안 들어와요. 하지만 이 잡념은 없애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여치 말고 뒷 꽁무니만 보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정진하다가 어느 기간에는 일주일씩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는데, 정진이 끝나면 두 부류의 스님들로 나뉩니다. '아, 끝났구나' 하고 홀가분해 하는 스님들과 남몰래 통곡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맹심과 분심을 이렇게 내야 합니다. "너(역대 조사들)도 장부면 나도 장부다. 나라고 못할소냐. 다만 하지 않을 뿐이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춘성 스님이 망월사에 주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20세 연하인 성철 스님이 망월사 선방에서 정진한 적이 있는데, 춘성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잠 안자고 공부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방선 시간 후 늦은 밤에 객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았는데, 젊은 수좌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신의 나태함을 자책한 춘성 스님은 그때부터 대중 생활만 하고 남이 잘 시간에 몰래 잠 안자고 공부를 했답니다.

이 '공문(空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의 순서가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먼저 깨친 사람이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선하지 않고 경전만 공부한다면 어느 세월에 생사해탈 하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선사님들의 법문을 들었으니 선에 깊이 천착하셔서 나고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영진 스님 1972년 금산사에서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용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99년부터 3년간 조계종 기초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을 맡아 '수좌 사관학교'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간화선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 기초선원장 소임을 맡을 때를 제외하고는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무금선원, 은해사 기기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4>

윤회의 증명

불교경전에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자신이 그 결과를 받는다 자작자수(自作自受)의 원리는 불자들로 하여금 착한 행위를 하고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지은 행위에 대하여 바로 그 과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 중에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최근에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윤회의 세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소용이 없다. 흥미롭게도 <장아함경>에 속하는 <폐숙경>에 윤회를 증명하는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 경전에서 붓다의 입멸 직후 가섭이라는 제자와 윤회를 믿지 않는 왕자가 윤회를 둘러싸고 대론하고 있다. 붓다의 제자는 전생, 현생, 미래생이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있다. 주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가섭이 물었다. "어떤 연유로 내생이 없다고 말하는가?" 왕자가 대답했다. "저에겐 병을 앓아 매우 고생하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나와 친족이고 또 10악업도 갖추고 있다. 만일 윤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대는 죽어 반드시 고통스런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면 너는 마땅히 돌아와서 내게 말해 알려달라. 그런 뒤에야 믿을 것이다.' 가섭이여, 그는 벌써 죽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친족이라서 당연히 저를 속일 리가 없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내생은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선 내생 존재 확인할 수 없어

'내생 있다'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행복

가섭이 비유를 들어 대답했다. "국법을 어겨 사형 집행관에게 끌려간 죄인이 부드러운 말로 간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놓아주시오. 고향의 모든 친족들을 만나 작별의 인사를 마친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소.' 바라문이여, 어떠한가? 저 간수는 기꺼이 그를 놓아주겠는가?"

왕자가 답변했다. "안 될 것입니다." 가섭은 부연했다. "죄인이나 간수나 모두 같은 사람으로서 현세에 함께 살고 있는데도 오히려 놓아주지 않는데, 더구나 그대의 친족은 10악업을 갖추었으니 몸이 죽어 수명이 끝난 다음 틀림없이 지옥에 들어갔을 것이다. 지옥의 간수는 자비심도 없고 또 사람도 아니다. 그가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지옥의 귀신에게 요구하기를 '너는 잠시만 나를 놓아다오. 내가 세간으로 돌아가 친족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들 석방될 수 있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바라문에게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 내생이 없다 라고 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저에겐 병을 앓아 위독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나와 친족이고 또 10악업도 갖추고 있다. 만일 윤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대는 죽어 반드시 고통스런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면 너는 마땅히 돌아와서 내게 말해 알려달라. 그런 뒤에야 믿을 것이다.' 가섭이여, 그는 벌써 죽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친족이라서 당연히 저를 속일 리가 없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내생은 없는 것입니다."

가섭은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똥구덩이에 떨어져 머리까지 빠졌다고 하자. 그 사람을 끌어내어 가루비누와 깨끗한 재로 여러 번 씻긴다. 다음에는 향탕(香湯)에 목욕시켜 여러 가지 고운 가루향을 그 몸에 뿌리고 거듭 씻긴다. 이렇게 세 번을 되풀이하고 향탕에 목욕시키고 가루향을 몸에 뿌리며 좋은 옷으로 그 몸을 꾸미고 온갖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자. 그 사람이 다시 더러운 똥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모든 하늘도 또한 그렇다. 이 염부리(閻浮利)의 땅은 냄새나고 더러워 깨끗하지 못하다. 모든 천신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백 유순(由旬)이나 떨어진 위에서 멀리 사람들의 냄새를 맡지만 뒷간 냄새보다 더 심하게 여긴다. 그대의 친족은 10선(善)을 갖추었으므로 틀림없이 하늘에 태어나 5욕을 스스로 즐기며 쾌락이 끝이 없을 텐데 왜 다시 기꺼이 이 염부리로 돌아오려고 하겠는가?"

죽어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생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왕자의 주장에 가섭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여도 내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생이 없다고 믿고 방종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만약 내생이 있으면 지옥에서 고생할 것이다. 내생이 있다고 믿고 착하게 살다가 죽을 때 설령 천상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내생이 있다고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든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야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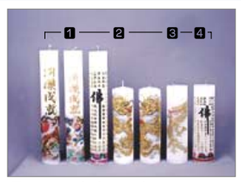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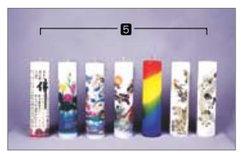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외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주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아 윌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DWS2000 램프용 • DWS1000 LED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